

■ 반갑습니다 - 취임 1주년 맞은 경성대 송 수 건 총장

학생이 선호하는 동남권 1위 대학 목표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송수건 경성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을 통해 제도약의 발판을 삼아 경성대를 학생이 선호하는 동남권 1위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송수건 총장과와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과 대학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교내·외적으로 막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해였다. 경성대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간의 신뢰와 소통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간에 주력, 그 결과 동남권 사립대학 중 취업률 1위(전국 4위)라는 성과를 거두 보람을 느꼈다. 학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굳은 의지로 함께 뛰어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난달 경성대 발전도약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 행사의 의미는.

▲동남권 명문사립대학 경성대학은 '경성비전 2020'이라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변화의 모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향후 대학의 지향해 나갈 방향과 목표에 대해 구성원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울러 부산을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한 자리로 선포식을 갖게 됐다.

—선포식에서 4S를 강조하셨는데.

▲4S는 생존(Survival)과 슬림화(Small), 특성화(Special) 그리고 강한대학(Strong)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방 사립대학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성대학은 무엇보다 생존을 발전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학 경영을 위한 조직의 슬림화(Small)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긴축재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학



송수건 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성대의 미래 비전을 밝히고 있다.

과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도 단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의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성화(Special)된 교육이 필요하다

고 보고 우선적으로 아침 8시 수업제와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제, 교양대학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학의 생존과 슬림화, 특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고통분담과 노력이 전제돼야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보람과 감동으로 이어질 때 강한 대학(Strong)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4S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선호도 동남권 1위 대학으로 선순환

시키는 것이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경성대는 문화·지리적으로 지역 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진 대학이다. 예컨대 지난 83년 개관한 경성대관서트홀은 명실상부한 부산공원의 전당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중앙도서관과 조류체협관, 박물관 등은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찾은 만큼 지역의 명소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내실있는 문화지역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지역과 함께하는 경성문화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시한번 남구지역 주민과 소통·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경성대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송수건 총장(61)은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주립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조지아주립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와 미드아메리카 침례신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후 지난해 경성대 1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남구의 문화와 역사 특강

이종철 구청장 용호중앙노인대학서



이종철 구청장이 지난 11일 용호중앙노인대학에서 특강을 통해 남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종철 구청장은 지난 11일 용호중앙노인대학(학장 박성배)에서 특강을 통해 남구의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얘기했다.

200여 명의 노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이종철 구청장은 자신을 선전 때부터 용호동에 살고 있는 토박이라고 소개하고 용호동의 역사에 대해 먼저 얘기했다.

이 구청장은 "선전은 용호동 설자리에서 1961년까지 합수를 끌어 만든 전오염을 생산했고 이 소금은 주민들에 의해 초량과 대신동 등 지역으로 팔려나갔다"고 회상했다.

이 구청장은 또 "용호동은 개성 왕씨 등 씨족들이 촌락을 이루며 형성된 지역으로 용호1대~4대로 나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현재 인구 10만 명에 가까운 대도시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용호동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용호광우회와 용호제당보존회를 결성해 모

범적으로 운영하며 해마다 음력 9월9일이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올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와 함께 이기대와 백운포, 신선대 등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용호지역 자연경관을 설명하며 애함심과 자연사랑 정신을 드높이고자 역설했다.

이종철 구청장은 전반적인 구정현황을 설명하고 특히 생활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매월 6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데 모두가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문헌금융단지과 일제 강제동원역사기념관, 해파랑길관 광안나루, 스카이워크 등 남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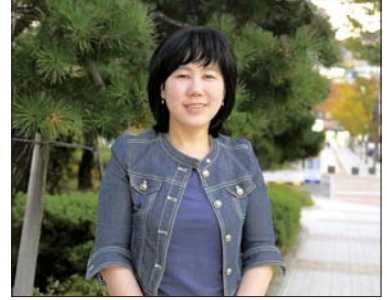
■ 우리구 이사람 -대연3동 이순애 씨

독일 세계 요리 올림픽 장려상

이순애(대연3동)씨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열린 '2012 독일 세계 요리 올림픽 대회'에서 개인전 장려상을 획득했다.

이순애씨는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해 쇠고기와 닭고기 등을 사용한 양식코스 요리를 출품, 심사위원들로부터 메인요리 모양과 가니쉬 재료의 다양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추장을 이용한 소스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거둔 이순애씨는 현재 부산여성회관 소속 요리강사로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요리 방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순애씨는 "요리올림픽에 참가해



독일에서 열린 세계요리 올림픽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대연3동 이순애씨가 수상인 기쁨을 전하고 있다.

좋은 성적을 거둔 노하우를 살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세계화를 꾀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귀 기울여 민원인 마음 읽어요

오 록 도 진 절 지 기

대연1동 전 윤 주 씨

전윤주(31 지방사회복지사기)씨는 2006년 6월 용호2동을 시작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뎠다. 평소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사회복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윤주씨는 장애인 업무 외에 전 반적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급자 가정방문과 경로당, 차상위계층 발굴, 자활사업 등 민원인의 상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다. 민원인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다 들

복지사각지대 놓인 소외계층
가족처럼 돕고 재할 이끌어



한다. 있는 법을 고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안되는 것은 설득해서 이해시킨다고 한다.

윤주씨는 길지 않은 공직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수도도 겪었다. 하지만 자신의 조그만

관심과 배려로 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공무원에 합

격하는 모습을 볼 때는 보람을 느꼈다.

윤주씨의 사회복지사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이다. 이웃돕기를 위해 희망복지 지원단과 연계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윤주씨는 앞으로의 계획은 사회복지법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복지요구를 수렴하고 업무에 더욱 충실하기위해 사회법 공부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정순 기자

박양근 교수 부산문학상 본상

수필집 '손이 작은 남자'로... 김정화씨는 우수상

박양근 부경대 교수가 지난 달 27일 부산에 출품한 소설에서 열린 제19회 부산문학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분지기자이며 수필가인 김정화씨도 우수상을 받았다.



수필집 '손이 작은 남자'로 본상을 받은 박 교수는 93년 '월간에세이'에서 에세이스트로 전향했으며 문학에

솔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영남수필학회장과 부산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한국펜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필집 『서 있는 자』, 『문자도』, 『작은 사람이 아름답다』, 『풀꽃처럼 불꽃처럼』 등을 출간했다.

어린이집연합회 합창대회 대상

우암2동 한샘어린이집 멋진 화음 자랑

우암2동 공립 한샘어린이집(원장 김복선) 어린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단위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지역의 자랑이 되고 있다. 한샘어린이집 어린이 합창단원 25명은 지난달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 분과가 주최 제3회 유아·교사 합창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16개 구·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실력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한샘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창작동요 '숨은 그림찾기'를 불러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것. 어린이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지도교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노력을 기울였다. 김복선 원장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환상의 화음으로 대상을 받은 것은 지역의 자랑이자 다른 어린이집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매월 초 개강!

MLS 외국어학원

12개국어 전문 성인 교육기관

기초문법	영어회화	TOEIC	TOEFL	토익스피킹
일본어	JLPT	중국어	新HSK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과정

www.mls.co.kr

부산광역시 중구 동래동 1가 11-1 (가톨릭대학교 부속) 11층

교육상담 610-1500

부산최고시설 난타지도 리듬연구소!

윤선자의 웰빙노래교실

수시접수!

웰빙노래(월) 오후2시 ~ 오후3시30분

금빛노래(목) 저녁9시 ~ 저녁10시

- 가요제 개최, 수료증, 난타지도자격증 취득가능

월, 목 강좌 오전9시 ~ 오후10시

화, 수, 금 강좌 상담후 시간 결정

- 국악찬양, 국악성가, 찬불가 장구반주법 지도

- 장구, 색소폰, 무용, 기타 연습실 장소대여

■ 장소대관 : 120평 (단체모임, 각종행사, 출장부대, 노래시선, 다목적홀)

용호2동시장 3층 대강당

용호2동 주민센터 옆 경부고속도로 131,131-1,20,22,24,27번

http://cafe.daum.net/621002

010-3564-7002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도 형제처럼..."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대표 배도성

바로계상기운동 남구협의회 회장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491-10 TEL. (051) 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TEL. (051) 582-1041

가장병원 장례식장 TEL. (051) 724-1024 **오동산동** TEL. (051) 627-4880

부산 스카피·골프클럽 스카피,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TEL. (051) 625-8626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빈소사용료 30%할인

장의용품비 30%할인

품격높은 예식홀, 넓은 주차시설 완비!

남구청 대강당 웨딩홀

남구는 저비용 고품격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웨딩 문화 사업으로 구청대강당을 예식장으로 꾸며 운영중입니다. 본관 1층에 200석규모로 패백실, 신부대기실, 265명의 넓은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저비용 고품격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웨딩 문화 사업으로 구청대강당을 예식장으로 꾸며 운영중입니다. 본관 1층에 200석규모로 패백실, 신부대기실, 265명의 넓은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부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단체이민이 누구나

이용시간: 토·일요일 11시부터 16시까지 매시간 단위로 사용가능

신청방법: 결혼 당사자나 혼주가 방문하여 접수 | **사용료:** 14만원 (선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예식

□ 간단한 예식문화 정착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폭죽, 비누방울, 드라이아이스, 케이크절단 등 연술은 금지하며 예식취소시 사용예정일 7일전 전액환불하며 1일전 50% 환불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 남구청 재무과 5층 ☎607-4166

- 월~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